

令和2（2020）年度 第1学年入学・第2学年4月編入学選抜検査

2020년도 1학년 입학・2학년 4월 편입 선발검사

外国語作文（韓国・朝鮮語）

외국어 작문(한글)

令和2（2020）年2月3日（月）実施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주의 사항

- 1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지의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 2 시험지의 빈 공간은 자유로이 사용해도 됩니다. 시험지에 쓴 것은 채점 대상이 안 됩니다.
- 3 답안지는 1장입니다. 답은 모두 답안지에 한글로 기입하십시오.
- 4 외국어 작문의 검사시간은 45분입니다.
- 5 소리 내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 6 시험지에는 수검번호와 성명을, 답안지에는 수검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7 문제내용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8 시험지를 교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受検番号  
수검번호

氏名  
성명

東京学芸大学附属国際中等教育学校

TOKYO GAKUGEI UNIVERSITY INTERNATIONAL SECONDARY SCHOOL

아래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새벽 1시에도 도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コンビニ*라고 알려진 편의점엔 우유에서 속옷까지 각종 물건을 사려고 들리는 손님들로 북적인다.

도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은 매장수 자체에 종종 놀란다. 일본 전국에는 편의점이 56,000 개가 있고, 도쿄에서는 교차로의 네 코너에 전부 다른 편의점이 있는 것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화장지에서부터 도시락이나 따뜻한 닭꼬치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손님들은 복사도 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택배를 찾아가고, 심지어 공과금을 낼 수도 있다.

밤낮없이 손님이 거의 끊이지 않고, 이토록 사랑받는 편의점이 지금은 매일 하루 24 시간 일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으며, 논쟁의 핵심은 고령화 일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이다.

한 가맹점 주인이 새벽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자신의 편의점 문을 닫기 시작하자 전국적으로 신문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으며, 주인은 가맹점 본사와 갈등이 생겼다. 57 세인 이 주인은 2월에 가게 일을 도와주던 아내가 죽자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사는 24 시간 영업을 계속하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24 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로로 쓰러지더라도 말이지요.”라고 그는 AFP 에 밝히면서 직원이 부족해서 38 시간 연속해서 일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편의점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빛이 환하고 항상 직원이 있는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2019년 4월 26일자 AFP 기사 수정

문제

이 글에 나온 논쟁을 바탕으로 하여, 편의점을 하루 24시간 여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한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受検番号  
수검번호

令和2(2020)年度 第1学年入学・第2学年4月編入学選抜検査  
2020년도 1학년 입학·2학년 4월 편입 선발검사

外国語作文(韓国・朝鮮語) 解答用紙 / 외국어 작문(한글) 답안지

The form consists of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a black border. Inside the frame, there are 20 horizontal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designated area for writing the answers to the composition question.

